

## 디자인의 생산지, 확산지, 집결지: 코리아디자인센터

# 2001

### 디자인진흥원사

- 디자인의 해 선포
- 2000년 베스트 10 디자인 상품 선정
- 「산업디자인진흥법」개정  
(법률 제6415조)
- 대전 디자인혁신센터 개소
- 한국디자인진흥원 출범
- 한국디자인진흥원 호남지원 개소
- 「산업디자인」지,『designdb』로  
제호 변경
- 코리아디자인센터 완공
- 2001 세계산업디자인대회  
(ICSID) 개최
- 국가미지 혁신사업

### 한국 디자인사

- MBC 디자인 특집 방영
- 2001 서울 산업디자인 선언문 발표
- 성남시 디자인 도시 선포
- 제1회 타이포잔치 개최
-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전 개최
- 디자인교육 2001 전 개최
- 디자인문화상품 비움(VIUM) 발표
-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총연합회  
법인설립

### 한국 사회사

- 서울월드컵 경기장 개장
- 인천국제공항 개항
- 여성부 출범

1997년 말 IMF사태라는 국가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닥치자 기업은 물론이고 각종 정부 시책의 시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그러나 한국 디자인의 메카 역할을 담당할 코리아디자인센터를 건립해 디자인을 집중 육성하기로 한 계획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아이디어를 통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의 가치와 중요성이 커진 것도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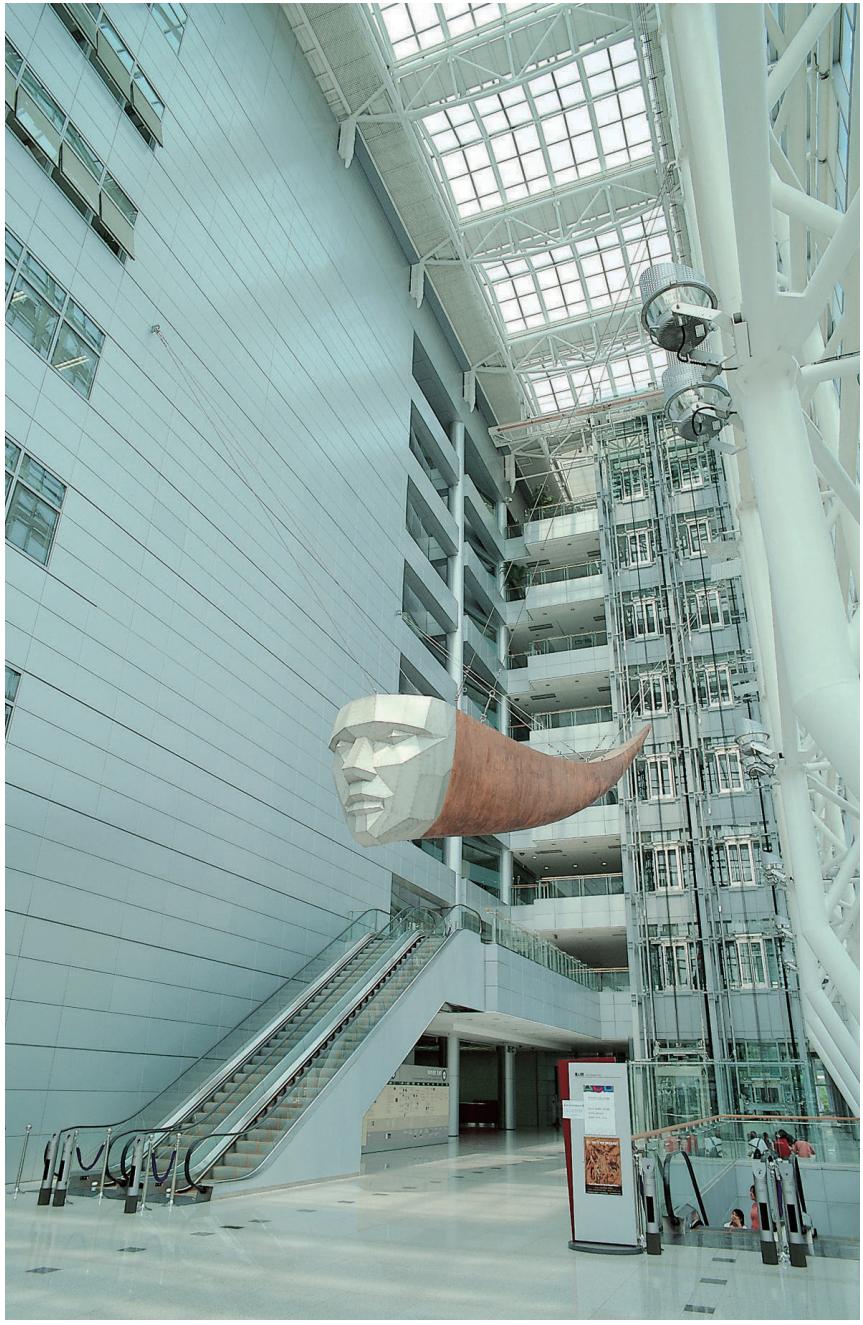
구체적인 건립 과정을 살펴보면, 1996년 12월 코리아디자인센터의 건립 기본 방향이 정해졌고, 1997년 2월에는 건립사업단이 발족했다. 4월에는 13명으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부지를 10월에 매입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설계경기를 공모했다. 두 달 뒤인 12월, 희림종합건축사의 작품이 선정되었고 1년 뒤인 1998년 12월, 기공식을 통해 코리아디자인센터 건립의 첫삽을 떴다. 완공된 것은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01년 9월이었다. 같은 해 12월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였고,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21세기 디자인 강국으로'라는 주제로 연설한 가운데 디자인 진흥을 격려하고 축하였다.



코리아디자인센터

코리아디자인센터가 건립될 때 목표로 했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디자인의 생산지이자 확산지이며 또한 집결지의 역할', '디자인을 생산하고 정보를 제시, 공유하며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역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자인 산실이 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 '여러 기업이나 단체의 해외 전시 기회 및 알선의 역할', '우리 디자인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역할', '일반 소비자들에게 디자인의 가치와 필요를 이해시키고 홍보하는 역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디자인을 이해시키는 역할', '국민을 위한 디자인 생활화를 선도하는 역할'.

이를 위해 지어진 건축물은 부지 3,238평, 연건평 14,201평에 지상 8층, 지



코리아디자인센터 1층 로비에 설치된 조각가 이종빈의 <신인류-신디자인>

하 4층 규모로 디자인정보센터, 디자인인큐베이터, 디자인영재아카데미, e-디자인아카데미 등을 비롯 통합디자인혁신센터, 전시장이 포함되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디자인 관련 단체 및 전문회사 등이 입주해 국내 디자인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맡았다.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지어진 코리아디자인센터는 디지털 시대의 디자인 진흥을 위한 길잡이 역할과 뉴 밀레니엄을 향해하는 방주의 이미지로 건립되어 2002년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건축적으로도 독특함을 띠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이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국내외 디자이너의 결집의 중심지’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또한 지상 8층 높이 44미터의 1층 로비에는 조각가 이종빈의 <신인류-신디자인>이 설치되었다. 얼굴과 몸통, 꼬리 형태로 가로 20미터, 무게 2.5톤의 거대한 조각상으로, 지상 5미터 높이의 허공에 매달려, 센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작가는 작품 제목처럼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시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신인류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건립 이후 2001년 10월에 열린 첫 번째 공식 행사는 세계산업디자인대회 및 《이탈리아 디자인전》으로, 이를 통해 코리아디자인센터를 국내외 디자인계 인사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4년 11월에는 지하 1층에 디자인체험관(DEX, 2004-2011)을 설립하여 디자인을 통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2020년 1월에는 한국 디자인 사료 약 1,000여 점이 전시되는 디자인코리아뮤지엄이 337제곱미터(102평) 규모로 개관했다.